

2020 인문대 우수 논문 및 창작 공모전
(한글 창작)

1.

하늘 위로 쏘아올린 화살

검디검은 갈망하는 눈동자 속

비춰지는 우두커니

자리 잡은 과녁

뜨거운 햇살처럼 반짝이는 9점과 10점

열의에 불타는 7점과 8점

눈망울에 맺힌 눈물이 물들인 5점과 6점

질은 안개 속에 웅크린 3점과 4점

그리고 공허한 공기에 둘러싸인 1점과 2점

부들거리는 손가락과 함께

나의 마음 속 거세게 요동치는 파도가

매아리를 울리고 화살은 위태로운 곡선을 그리며

쏟알같이 공기 속에서 춤을 춘다

설 틈 없이 흔들리는 나의 심장

경로를 빗나가지만

한 곳을 향해 뿌리를 내린다

아슬아슬한 넘을 수 없는 경계선에

깊숙이 파고든 화살촉은

마음을 파고들며 낭떠러지 끝자락에

위태롭게 발을 디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한다

뛰어넘을 수 없는 장벽의 현실에
아른아른 거리는 눈앞
오로지 야속한 산들바람만이
나의 머릿결을 쓰다듬어준다

이제는 저 앞이 아닌
몽글몽글한 몽게구름 위
석양이 지는 불타오르는 노을이 새겨진
하늘을 올려다보자

과녁이 초점이 아닌
넓디넓은 하늘을 향해
무한히 솟을 수 있는 곳을 향해
최후의 화살을 위대하게 겨눈다

2.

관람차

메마른 시공간을 적신 안개를 휘저으며
터벅터벅 앞을 향해 발을 내디며
시간의 흐름을 타고 공기 위를 걷는다

솜사탕 수증기는 손끝에서 물방울처럼
톡톡 터지면서 물러나는 순간
아득히 보이는 관람차

눈을 비비고 삐걱대는 문을 조심스레 열어
관람차 한 칸에 몸을 맡기는 순간
움직이는 시곗바늘의 오르막길

멍하니 안개가 자욱한 수평선을
푹어저라 쳐다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15분이 지나며 올라온 풍경은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가슴이 벅차오른다

30분이 지나며 올라온 풍경은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의 외침,
환희의 눈물이 차오른다

하늘의 중심에서 바라본 풍경은
작지만 사소한 이야기 꾸러미들이
방울방울 모여 만들어진 세상

그 찰나의 순간에게 기다리라 재촉하지만
아속한 중력의 법칙에 이끌려
작별인사를 해야 할 시간

서서히 달히는 나의 기억 속 저장고
45분과 60분 사이의 지점을 찍을 때
함께 땅에 끌려가는 나의 몸

24분, 24시간이 지나고
24일, 24년이 흐르고
챗바퀴처럼 돌고 도는 여정

내리막을 따라 내려와
익숙한 공기를 크게 들이쉬며
다시 땅에 발을 내딛는다

오늘 한 바퀴의 여정도 관람차에
고이 모셔놓고 땅의 눈높이에 맞추어
뜨겁게 불타오르는 석양을 향해 달린다

3.

모래시계

한 알 한 알 반짝이는 결정체가 빛을 뿜내고 춤을 추며 미끄럼틀을 탄다

첫 번째 과거의 역사를 넘어 두 번째 수수께끼의 시공간으로

몸을 웅크리고 현재의 좁은 틈을 비집고 낙하 중

블랙홀처럼 점차 고요히 빠져 든다

얇은 통로 속으로 깊숙이

모래시계

쌓이고 쌓여 우뚝 산을 만들어

추억의 모래알을 담아 크게 후우 불면

어느새 넓은 포용으로 안기에도 풍부한 선물의 향연

째깍째깍 사계절이 지나 곡선을 그리며 시공간이 회전 한다

또 차곡차곡 기록이 모아지고 있는 언덕이 푸릇푸릇 찬란해지기를 기대하며

4.

금속활자 (金屬活字)

은은한 달빛 아래 먼지가 쌓인

남은 나무 책장에

묵묵히 박혀 있는

완강한 금속활자 (金屬活字)

그들은 속삭인다

이것은 대단한 업적이고 위대한 문화라고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귀중한 그리고

한 번 판에 새겨졌으니 불멸의 법칙이라고

그들은 말한다

네모기둥 모양의 금속에 법칙을 새기리라

금속활자의 먹은 따로 제조해야 하니

그만큼 신중히 다루리라

그들은 외친다

굳어진 글자들은 금속활자의 영원한 유산

찍혀진 활자는 거친 표면의 깊은 뿌리와

수세기에 걸쳐 내려온 도덕의 법칙

하지만 우리는 새로운 금속활자를 창조하며

거칠게 불꽃의 글자를 피어오르게 한다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온 불멸의 글자들을

가녀린 손끝으로 파멸시킨다

그들의 눈초리 사이를 빗겨나가
뾰족이 튀어나온 선명한 경계선을 무너뜨려
규칙과 법칙을 뒤집으며
새로운 배경을 심는다

새로운 장을 넘겨
이마에서 송글송글 흐르는 땀방울을 닦으며
어둠 속 빛나는 달밤으로 물들인 안개 속에서
오늘도 그들의 금속활자를 뛰어넘는 또 하나의 명작을 만든다

5.

먼 항해를 향해

저기 끝없이 펼쳐진 먼 바다를 향해
뜨거운 햇살이 그녀의 머리칼을 간지럽힌다
발가락 사이로 파고드는 축축한 모래 알갱이
휘파람을 부르는 바닷바람이 그녀를 육지로 다시 밀어낸다

윤기 나는 트로피처럼 그녀를 응시하는 따가운 눈빛이
그녀 마음 깊숙이 잠겨 있던 마그마를 넘쳐흐르게 하고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힌 아이들의 통쾌한 웃음소리는
마음의 지각변동을 일으킨다

눈을 감고 오늘도 '미완성'인 부엌의 체크리스트
설거지를 '완성'한 후 미끄러지는 싱크대의 못다 한 물줄기
아직 정리하지 못한 아이들의 널브러진 옷과 함께
메뉴를 고민하는 모습이 구름 위로 뭉게뭉게 떠오른다

눈앞에 펼쳐진 푸르른 해양의 빛
바람을 실어가는 파도와 끝나지 않는 지평선 너머
존재하는 미지의 세계를 향해 거부할 수 없는 자석에 이끌리듯
현재의 세계를 음소거하고 온 몸을 자연에 맡긴다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한 움큼 안고 전진한다
열의로 활활 타오르는 눈동자
한발 한발 성큼 내딛으며 그녀 앞에 펼쳐진
에메랄드 빛 물결을 동경하며 긴 항해를 향해

6.

신인류

따뜻한 품속에 안겨
엄마의 어깨를 움켜진다
저 그림자들은 왜
각기 다른 눈동자를 가지고 있을까

쿵쾅쿵쾅
엄마의 심장 소리가 들린다
저 그림자들도 이처럼
햇살 같은 숨결을 간직하고 있겠지?

하얀 검정 하얀 검정
뽕뽕 달리는 물체들은 멈추고
뒤죽박죽 교차하는 그림자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까?

철컹철컹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각기 옷을 차려입은 마른 인형처럼 서 있는
저 그림자들은 무엇을 숨기고 있을까?

얼굴에는 반쪽짜리 경계선을 새기고
깊은 바다 속
동화책에서만 보던 물고기들과 함께
뼈끔뼈끔 수영할 것 같은 형태들

네모난 사각형에 간혀있는 모습들
손가락을 서로를 향해 가리키는 사람들은
마치 엄마가 어젯밤에 읽어준
피노키오의 코와 닮았다

투명한 눈덩이 속에 보호되어
오늘도 하염없이 묵묵히 굴러가는 형태들
냉철한 공기가 흐르는 거리를
칼바람이 채워 넣는다

엄마의 어깨를 다시 움켜쥐며
어둠 속을 향해 걸어간다
비 온 뒤 무지개가 피어오르듯이
나를 눈동자 너머 환하게 웃게 해 줄 빛을 기다리며...